

2016년도 단기선교 워크북

[선교지: 미얀마 인세인 지역]

양곤 DAGON SEIKKAN

2016. 9. 9 (금) ~ 9. 16 (금) / (7 박 8일)

양곤 시내 중심부에서

동남쪽,

서북쪽 <16교구 선교할>

12 교구 1 팀

서기 김 영 춘

♣ 목 차 ♣

▶ 표 지	1
▶ 목 차	2
▶ 단기선교 기도제목	3
▶ 선교구호 / 개인별 업무분장---	4
▶ 사역개요 /금식기도표-----	5.6
▶ 현지사역 일일시간계획 / 현지 예배계획	7
▶ 기도회 (경건회 및 평가회) 계획	8
▶ 경건의 시간 / 사역평가회	9
▶ 사역일지	10
▶ 사역을 정리하면서	27
▶ 메 모 -----	33~36

♣ 2016 단기선교 기도제목 ♣

- (1)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준비된 선교팀이 되게 하소서
- (2)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악한 영적 세력의 방해들을 이겨 내게 하소서
- (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선교지의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하소서
- (4) 팀원들이 자신의 방법, 경험, 지혜를 내려 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 (5)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지의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 (6) 사역 중에 현지의 문화, 기후, 환경 등을 잘 극복하고 강건하게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8) 선교 방침을 준수하며 팀원과 주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되게 하소서
- (9)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를 진행하게 하소서
- (10) 선교 이후에도 현지의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 선교구호 ♣

- (1) 기도와 말씀으로 선교하자
- (2)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자
- (3) 믿음과 순종으로 선교하자
- (4)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선교하자
- (5)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선교하자
- (6) 낮에는 복음 전파 밤에는 영적 무장
- (7) 나는 주님 오실 때 까지 선교사다. 아멘.

♣ 개인별 업무분장 ♣

업무	담당	업무 분장 내용
팀 장	이동준	팀 총괄, 기도회 인도, 말씀 인도, 사역점검 팀 영성 관리, 개인별 업무 분담, 사역지도, 팀원 관리, 현지 도착보고 및 귀국보고, 노방전도, 방문전도
총 무	이선희	훈련 계획 및 사역 계획 수립, 숙소 및 차량 섭외, 재반 행정 업무, 항공권 관련 업무 및 예약 확인 현지에서 여권 및 항공권 관리, 노방전도, 방문전도
서 기	김영춘	각종 일지 기록 및 종합, 소감문, 사역 보고서 작성, 워크북 작성, 이메일 복 관리 및 제출, 노방전도, 방문전도
회 계	정희숙	선교팀 예산 관리(수입, 지출), 환전 업무, 회계보고, 노방전도, 방문전도
의 료	최금실	의약품 수급 및 관리, 노방전도, 방문전도
찬양	이영순	찬양 · 율동 인도, 노방전도, 방문전도
찬양	박용순	찬양 · 율동 인도, 노방전도, 방문전도
찬양	박인애	찬양 · 율동 인도, 노방전도, 방문전도

♣ 조 편성 현황 ♣

구분	조 장	조 원
1조	이동준	박인애
2조	이선희	최금실
3조	김영춘	박용순
4조	이영순	정희숙

♣ 사 역 개 요 ♣

1. 주 제 :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2. 표 어 :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3. 주제성구 :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4. 주제찬송 :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
5. 선 교 지 : 미얀마 인세인지역
6. 사역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9월 16일(금) / 7 박 8 일
7. 사역내용 : 정탐, 노방전도, 축호전도, 어린이전도 등

〈 미얀마 국가정보 〉

위치 : 동남아시아, 중국 남방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수도 : 2005.11 네피도 (Naypyidaw)

면적 : 67만 6천 552 Km2 (남한의 7배 반, 한반도 3배)

인구 : 60,254,716명 (2013)

인구밀도 : 62.8명/km²(2003)

정치 : 연방제로서 공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 (Union of Myanmar)이다.

언어 : 공용어는 미얀마어이고 설외어는 영어이며 문자해독율 90%정도됨.

미얀마에는 135개 이상의 종족이 있으며 각기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종교 : 불교

불교 89.3%

기독교 5.6%

이슬람교 3.8%

힌두교 0.5%

정령숭배 0.2%

시 차 : 한국시간 2시간30분 늦음. 전압220v.50hz

기 후 : 고온 다습한 열대 몬순기후. 연평균 27.5도연평균 강우량 2,800mm

11월~2월에 이르는 시기가 가장날씨가 좋다.3월이후가 되면 날씨가 더움

3월~5월은 덥고 건조한 건기이며, 6~10월은 우기이다.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낮 최고기온	32	33	36	36	33	30	29	29	30	31	31	31
밤 최저기온	18	19	22	24	25	24	24	24	24	24	23	19

♣ 금식 기도표 (하루 한 끼) ♣

8월 1일~31일

성 명	날 짜 (요일)	성 명	날 짜 (요일)
이동준	1일(월)	박인애	16일(화)
이선희	2일(화)	이동준	17일(수)
김영춘	3일(수)	이선희	18일(목)
정희숙	4일(목)	김영춘	19일(금)
최금실	5일(금)	정희숙	20일(토)
이영순	6일(토)	최금실	21일(주일)
박용순	7일(주일)	이영순	22일(월)
박인애	8일(월)	박용순	23일(화)
이동준	9일(화)	박인애	24일(수)
이선희	10일(수)	이동준	25일(목)
김영춘	11일(목)	이선희	26일(금)
정희숙	12일(금)	김영춘	27일(토)
최금실	13일(토)	정희숙	28일(주일)
이영순	14일(주일)	최금실	29일(월)
박용순	15일(월)	이영순	30일(화)
		박용순	31일(수)

♣ 현지사역 일일 시간 계획 ♣

시 간 계 획	내 용
~ 06 : 00	기 상
06 : 00 ~ 06 : 30	아침 경건회
06 : 30 ~ 08 : 00	아침 식사
08 : 00 ~ 12 : 00	오전 사역
12 : 00 ~ 13 : 00	점심 식사
13 : 00 ~ 17 : 00	오후 사역
17 : 00 ~ 18 : 00	숙소 복귀
18 : 30 ~ 19 : 30	저녁 식사
19 : 30 ~ 22 : 00	저녁 평가회
22 : 00 ~	취 침

♣ 현지 예배 계획 ♣

구 분	사역지 도착예배	주일 예배	사역 종료 예배
일 시	9월10일	9월11일 (주일) (본 교회 예배순서 별지 주보 참조)	9월15일
사 회	이동준		이동준
목 도	다같이		다같이
찬 송	500장		336장
신앙고백	다같이		다같이
기 도	이선홍		김영춘
성 경	행1:1~8		행14:8~18
설 교	이동준		이동준
합심기도	다같이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다같이

※

24:50

11:00

♣ 기도회 (경건회 및 평가회) 계획 ♣

일자	구 분	시 간	찬 송	기 도	말 씀	비고
9월10일 (토)	아침 경건회	06:00~06:30	497	정희숙	행2	양곤
	사역 평가회	19:30~21:00	407		행3	
9월11일 (주일)	아침 경건회	06:00~06:30	202	이영순	행4	/
	사역 평가회	19:30~21:00	295		행5	
9월12일 (월)	아침 경건회	06:00~06:30	447	박인애	행6	/
	사역 평가회	19:30~21:00	549		행7	
9월13일 (화)	아침 경건회	06:00~06:30	520	김영춘	행8	/
	사역 평가회	19:30~21:00	134		행9	
9월14일 (수)	아침 경건회	06:00~06:30	529	최금실	행10	/
	사역 평가회	19:30~21:00	518		행11	
9월15일 (목)	아침 경건회	06:00~06:30	210	박용순	행12	/
	사역 평가회	19:30~21:00	507		행13	

♣ 경건의 시간 ♣

2016년 9월 10일(토)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497장

기 도 : 정희숙

성경말씀 : 행2장 37-47

은혜받은 내용 :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찬송과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모니하며 찬양하며 찬
가하며 그리고 빵을 나누어 먹고 찬양하며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께
구원 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 많아졌나.

기도

예드로처럼 감동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
는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사역 평가회 ♣

2016년 9월 10일(토)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407장

기 도 : 최금실

성경말씀 : 행8장 4:13-22

평가회 내용 :

① 전도 현장에서 언어가 자유롭지 못함을 새삼스럽게 좀더
답답함의 필요함을 느낌. 좀더 준비된 환경은 기쁜
것을 느낌.

② 우천 관계를 2주사역을 하기 어려웠지만 사역자
정당과 다른 외향 교회는 들어보게 하였고 다른 사역
계획을 세우게 됨. 좋았음.

♣ 사역 일지 ♣

세익칸 (seikkān)

2016. 9. 10 (토) 날짜: 27℃, 사역지: 카슈와에

◎ 오늘의 사역 일정

시 간	사역 내용
07:00 -	아침 경건회
08:00 -	목회 식사회 휴식
11:00	주요 예배
12:00 ~	사역지 < 카슈와에 > 카슈와에 카이로사님들 가정 교회 방문차 가논도를 식사하고 카슈와에 도착
14:00 ~	

17:00 주요 사역 내용

- ① 예정된 카슈와에 카이로사님들 가정교회 방문 30여명
의 현지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찬양 및 찬송 교회
에서 준비한 과일 등 선물 교환
- ② 목사님에 축하하고 사모님에게서 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교회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주기로함 <선물기, 성경
철권 등> 9월 12일 물품 구매하여 아지 방문하여 전달
하여 전달하기로하고 카가도를 전지상가에서 물품 및
구매 내역서 받기

♣ 경건의 시간 ♣

2016년 9 월 11 일(주일)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202장

기 도 : 이영순

성경말씀 : ~~행 2장~~ 행 2장 54~8:3

은혜받은 내용 :

열린 하늘 너로 본 창립 순례.

둘이 땀과 증오는 순례의 주며 순례의 영광을 받은 시종으로 주께
죄를 그들에게 돌리자고 하였다.

스데반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스데반 같이 복음 전하기 도하는 믿음을 주시
♣ 사역 평가회 ♣ 하소서.

2016년 9 월 11일(주일)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295장

기 도 : 박용순

성경말씀 : 행 5장

평가회 내용 :

① 오후자영 <사순절의 제사> 제사복사임액 <가장교회> 방문.
주일 오후자영만 연락 받은 교회와 어린이와 어른들 30여명 찬양
함께 복음과 찬양 제사는 나누어 주신 주님께 감사.

② 목사님 머글로하 사모님도사 주일 제사를 맞아 교회나 순례와
도움을 요청. <선종기 및 천국. 성경 등>

③ 이모든 허심들을 작정 보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게 됨에 감사
고난을 준비 하오며 감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 감사함

♣ 사역 일지 ♣

2016. 9. 10 (토요일) 날씨 오전 맑음, 후늘 흐림 ℃, 사역지 :

● 오늘의 사역 일정

온도 27°C.

시 간	사역 내용
09:00 ~	환전 및 물을 비롯한 생필품 구매. 물까지 구매 개원전도.
13:00	점심
14:00 ~	오후 정량 자궁
18:50	커가 평가회 및 기도회.

● 주요 사역 내용

오전 환전 및 생필품 구매.

환전시 더화 고약한 물수를 환율의 차에
최소임. 후후 고약한으로 준비하였으면 함.
시장 주변 개원전도.

오후

실정 및 처치 지도 구급차 시련에 들었지만
주관하러 구비할 수 있었음. (토요일 2주 ~ 주일 3주)
주요역지인 드래곤 처우 정량치 이동
유형 관계로 처치 당시의 차질에 있었지만
주관수업이 있는 다른 구급 개강 교강 방문으로
전도 계획을 짤 수 있었음.

밤

평가회 및 기도 주월 예배 (10)
취침.

♣ 경건의 시간 ♣

2016년 9 월 12 일(월)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447장

기 도 : 박인애

성경말씀 : 행 9장 가장기대한 증언. 변화된 삶.

은혜받은 내용 :

- ①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만 주님은 소망 가운데 사람은 미래를 보실
- ② 사람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 ③ 예수님을 만난 삶이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의 빛이 변화되고 그 변화는 온전한 생명을 통하여 계속되어나갑니다.

성령의 지체로 같은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무엇도 가로막지 마소서

♣ 사역 평가회 ♣ 원자재 함께 하소서.

2016년 9 월 12 일(월)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549장

기 도 : 이선홍

성경말씀 : 행 8:26-40. 성령의 평평이 주를 순종하는 방법.

평가회 내용 : 성령의 평평이 어떤 한 영혼을 키게 부르는 승상이기도 다르다.

RAPHA HOME CHURCH.

제2차 방문. 천주교 성령교회에 설치 스텐드 성령교회에 설치 해준으로 라파가 성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좋은 성령의 되 있음

성령. 주를 믿는 여러 안락성령 구원으로 라파교회에 큰 기쁨은 있음.

계속적으로 라파교회와 협력으로 복음 전파사역에 힘쓰고자 함

구도되어 주님을 제자로 삼고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

♣ 사역 일지 ♣

2016. 9. 12 (월) 날씨: , 온도: 28 ℃ , 사역지 :

Dangook 다문>

회고개뽀비

Seikkan

◎ 오늘의 사역 일정

RAPH A HOME CHURCH.

시 간	사역 내용
08:30	호화출발 양은 시정 에 성경및 쪽북구입
14:00	양은출발 후사후 선물기 구입 설치기사
15:00	성외로 리와가정교회 도착
15:00 17:30	선물기 설치, 구입한 성경의 물품 전달
	교회주변 노방및 축조전도 <리와교회 여행>
19:30	식사함께
	→ 카가 <HOTEL>

◎ 주요 사역 내용

- ① 리와가정교회에 선물할 성경및 각종 물품구입
차량 정차 현상으로 많은시간소모.
- ② 선물기 구매및 설치완료.
리와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세우에서 선물기3대 구입
구입후 이어 설치기사 성외까지 설치비용 별도지급.
각종 물품구입(선물기)및 설치는 교구성도들의 도움
주어진음으로 구입 및 설치.
- ③ 선물기 설치시 함원들은 리와교회 여행머들과함께
교회주변전도 사역기간내내 행운하의 선교하라고함.

오늘도 나의 생각과 관심은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
하시고 선한 뜻만 품게 하소서.

♣ 경건의 시간 ♣ 유슬림의 영결날 22
추위로 지정됨.

2016년 9 월 13 일(화)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520장

기 도 : 김영춘

성경말씀 : 행 8장 10:9-23

은혜받은 내용 :

"잘못된 선행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자."

'월이나 잠자코 오라'는 명령을 베드로는 거부했다. 전통과 고정관념,
자기 확신에 묶여 있을 때 이는 새로운 배움과 순종의 길은 온전하게 갈 수 없다.
하나님은 자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베드로는 카나넨
의 시그달이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 영적 주파수를 조절했고 과감하게
결단했다. 누가 뭐라고?

'기도' 신교의 현장에서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고별회와 결별예회된
자를 외롭게 하소서. 나의 가치관과 나를 내려 놓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에
사역 평가회 ♣ 우리의 선교사역에 함께 하소서

2016년 9 월 13 일(화)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134장

기 도 : 정희숙

성경말씀 : 행 9장 33-43.

평가회 내용 :

- ① 제3차 라파가전교회 방문 살인 K9 전달 전날 어린이가
떨어 떨어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건강 회복, 감사.
- ② 제3차 라파가전교회 주일예배 오전 2부 개원. 2부
맞춤형 전도. 좋은 반응에 감사. 때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체로 능숙하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
- ③ 라파가전교회 평가회 (마땅한 장소 없어 차원에서 실시)

♣ 사역 일지 ♣

다른 세력칸 지역

2016. 9. 13 (화) 날씨: 맑음, 온도: 29℃, 사역지:

주자나 마을.

리화교회주변.

◎ 오늘의 사역 일정

시 간	사역 내용
09:00 ~	호랭출발. 사역지로 이동중 리화교회 앞 80
~ 10:30	수 구입 및 전달
10:40 ~	리화교회주변 주자나 마을 중로. 개원
17:00	노방 활동
17:00 ~	호랭커가 도로 커덕 식사
19:30	호랭차

◎ 주요 사역 내용

무월식사후 사역지(리화교회주변 주자나 마을)
로 이동중 앞 80kg 구입 리화교회 전각(교구
선교부하로 구입)을 주자나 수장 박에 전달하는
리화교회 사모의 맞선에 참석함. 앞 전달중
교회주변 주자나 마을에서 2점 오후 4시경.
가차길 끝에서(정기도로 정월차 정관 정월차게
출) 정관 리화교회주변에 중 주자나 배에 초
청 정월로 밤, 계속되게 여 하나님의 인도하
심에 따라 순종할 것을 피차 약속하고 작별함.
전월 정월한 정월기 주자나 정월로 정월로 정월로 정월로
정월로 정월로 정월로 정월로 정월로 정월로

'오늘도 나의 생각과 판단은
대려 줄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려하시고 살만 뜻만 줄게 하소서

♣ 경건의 시간 ♣

2016년 9 월 14 일(수)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529장

기 도 : 최금실

성경말씀 : 행 12장 1-17 열려야 하는 두 문 (여고보의 순교자 에드워드 등)

은혜받은 내용 :

교회는 박해에 직면 했을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견결히 기도했음.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
결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면 해로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감작스런 죽음을 경험합니다 해로운 죽음은 박해자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의 승리였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 보르
하여 주소서

♣ 사역 평가회 ♣

2016년 9 월 14일(수)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518장

기 도 : 이영순

성경말씀 : 행 14장 1-18 두사도의 삶의 존제비율

평가회 내용 :

오전, 오후 양산대학 교장 봉은고등 학교 하고된 전도자들로 비교적
외로운 학생 (외국고지향기향) 들이있지만 심심히 전도자들로
급해주었음 너무고맙고 감사했음.

대학생들 여러명이 한국어를 한글말았고 전도자들로 주님 영도하
고, 주어진 심정 쪽북은 (여가. 오산북)을 영접기 드루원가
어시터하는 학생들에게 전할 좋은 반응 있음.

전혀 거의 소모됨.

♣ 사역 일지 ♣

2016. 9. 14 (수) 날씨: 크고 맑음, 온도: 28℃, 사역지: 황근대학교외주변.

◎ 오늘의 사역 일정

시 간	사역 내용
09:00	초월출발 전도용도로 전할할 성경및쪽
12:30 ~	복음구입 황근대학교 교정에서 전도.
12:30 ~ 13:30	점심
14:00 ~	오후 황근대학교 교정 및 황근고등학교
- 17:00	황근대주변 노방전도.
18:00 ~	귀가.

◎ 주요 사역 내용

전도용도로 성경및쪽복음 <한복은:이것이여 파가복음
이것이 영어복음> 50권 20권구입 <신구약은:이것이>
황근대학교 교정에서 2인1조 개회 및 구급전도.
관음죽은 학생전별 쪽복음 전도지와 함께 전달(성물) 관음의
주신다.
오후 2명도 동일한 방법으로 황근고등학교 교문과주변
성가명집지영 측근및 노방전도
귀가후 치명 쟁가회 가짐.
포도맛강한음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위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모두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미혹하지마련
까지 성경및의 전도가운데 순종할것을 기도하며 귀향.

마귀처럼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게 하고 모든 것을 믿고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 경건의 시간 ♣

2016년 9 월 15 일(목)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210장

기 도 : 박용순

성경말씀 : 행 12장

은혜받은 내용 :

16:16-26.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사람들,
 바울은 열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가산을 팔아 남으로 하여금은 온갖 행악과 주된 정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처녀 한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을. 감옥에서 바울과 사도들이 기도하는
 바울의 감옥에서 기도하는 것을 한 남자에게서.

성도의 결과에 열렬히 바쳐지게 하고 주님의 위대한 손길을 믿고
 감사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 사역 평가회 ♣

사역 종료 예배

2016년 9 월 15일(목)

/ 인도 : 팀장

찬 송 가 : 507장

기 도 : 박인애

성경말씀 : 행 19장 1-20

평가회 내용 :

사람의 말과 주님의 부르심을 좇는 성도가 되게
 하고 고난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나를 사랑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바울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바울이
 바울이 온 것은 바울이 온 것은
 성경의 대항자로서 바울의 삶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바울의 삶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의 마음을 처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뜻은
 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이니라 <잠 16:9> 마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모든 일을 황폐하게 하며 의뢰하여 주님께서 뜻을 보일 때는 항상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라

♣ 사역 일지 ♣

2월 12일 목요일

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2016. 9. 15 (목) 날씨: 온도: 27 °C, 사역지: RAPA 교회.

● 오늘의 사역 일정

시 간	사역 내용
07:00 ~	아침 경건회
08:40	호텔 자용 및 렌트카 자용료 정산
09:00 ~	라파교회 가지광장은 학용품 등 전달 함께 예배하며 찬양, 외국에 출라중인 귀국 목사님 복귀 감사제와 합동
19:00 ~	간담회

간담회 후 수주회 간담회 후 귀가.

● 주요 사역 내용

라파교회 방문 (무침례가 왕리 등) 간담회 학용품 및
 선물 전달. 저녁 예배 후 귀가길 간담회 후 수주회
 노상전도. 16일 새벽 12:30분 출발 귀국 비행으로
 호텔까지 11:00 까지 머물기로 하고 저녁 식사 후
 총영사관 방문
 예상보다 훨씬 외국과 선교가 되었음에 감사 주님께
 감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뜻대로 성령이 주관
 한 선교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성경의 인제심에 순종함.
 힘찬 기도 감사. 한 사람의 낯으로 모든 것을 행함. 모든
 사역에 주님이 주신 감사. 원상에서 수고한 원상 및 총영사관
 방문 감사함. 주님이 보내신 모든 사역으로 감사
 사역은 마칠. 주님 감사함이다.

♣ 미얀마어 생활 언어 ♣

< 접 촉 점 >

안녕하세요?	밍글라바
만나서 반갑습니다.	웨야다 똥따 바대
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쩨노(쩨마) / 다웅꼬리야까 라바레
제 이름은 _____입니다.	쩨노(쩨마) 나메 / XXX 루 코바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띤 나메 / 벨로 코바들레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카날라우 / 어치잉 씨바들라
예, 좋습니다.	호웃깨

집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 예잉태 칸나 우원루 야물라?

개를 붙잡아 주세요 / 쿠외고 치 뻬에 바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쩨노(쩨마) / 띤고 / 더킨 예수 어짜웅 / 메익셋 뻬에베야세
이것을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글을 읽을 줄 알 때)	디하고 (제제) 팻찌바웅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따라 하지 않으려 할 때)	쩨노 (쩨마) 뻬다고 나타웅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딘 / 더킨예슈 어짜웅꼬 / 짜푸 바들라?
아니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힝잉, 마 짜푸 바뻬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호웃깨, 짜푸바데

< 복 음 >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킨예수하 / 띠고 / 찻바레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아떠킨하 / 루따흐닌 / 어야캇뎡고 판씨인 케바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피아더킨고 / 메용지친하 / 아빠잇 핏바레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피아떠킨하 / 루따두이에 / 어뵤고 쿠인룟푸 / 더킨예슈꼬 / 셸룟케바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킨예슈하 / 전노두에 아빠잇짜우 / 렛와가다이마 어때칸 케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평옛 미야우 더 네마 / 신뵤안 타 미야우 께바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킨예슈꼬 / 용지매소인 / 타워라 아뻬트 / 야마 떼 차바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킨예슈꼬 / 께딘썬 아뻬트 / 용지 세친바레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떠킨예슈 / 마 더빠아 / 더 차 / 께딘치인 닐란 / 머씨바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떠킨예슈꼬 께딘썬아뻬트 용지 루바달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딜루 / 쑤따웅 짜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전노(전마) / 나우꾸 / 라이쑤짜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쩌놋두 아두다와 쑤따웅 짜바쑤

< 영 접 기 도 >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더킨예슈꼬 / 머미예 깨딘신어핏 / 용지 랫칸데 / 아뚜엣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쩨노(쩨마)예 아빠잇고 / 쿠인 톳비이 / 깨딘 더무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더킨예슈이 나마 나이 / 쑤따웅 바레.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따라 말했을 때)	아얀 도라배

< 다시 한번 강조 >

1	이 말씀은 꼭 기억해주세요.	다 사까고 데자 흐맛 타뻬바
2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킨예수하 / 띨고 / 찿바레
3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킨예슈꼬 / 용지매소인 / 타워라 아뻬트고 / 야마 띨 차바레
4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킨예슈꼬 / 깨딘썬 아뻬트 / 용지 세친바레
5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떠킨예슈 / 마 더빠아 / 더차 깨딘치인 닐란 / 머씨바부

< 전도 마무리 >

1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쩨노 (쩨마) 댜아똥 쑤따응 뻬루야말라?
2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쩌놏뚜 아두아과 쑤따응 짜바쑤
3	제가 한국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쩨노(쩨마) 꼬리아 사까로 쑤따응바이
4	이 책자(전도지)를 드리겠습니다.	디 사씨응고 랫싸우 네네 뻬친바데
5	이것을 읽어 보세요.	디하고 팻찌바웅
6	당신을 위해 한국에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꼬리아 야우뻬마래 댜아똥 아메이판 쑤따응 뻬바미
7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안녕히 계세요	쩌주 /엄야지 댜바래, / 두와 바웅메

< 바른 상황 >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남한)에서 왔습니다.	밍글라바 / 쩨노(쩨마) / 다웅꼬리야까 라바래
2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카날라우 / 어치잉 씨바들라
3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쩨노(쩨마) / 똔고 / 더킨 예쑤 어짜웅 / 메익셋 뻬에베야세
	저는 바쁩니다.	쩌노(쩨마) 마아뽀 아록마데
	미안하지만 듣기 싫습니다.	아나베메 나아마다웅 진바부
4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킨예수하 / 똔고 / 찿바래
5	예수님을 믿으세요.	더킨예쑤꼬 요웅지바
6	이것을 읽어 보세요.	디하고 팻찌바웅
7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안녕히 계세요.	쩌주 / 엄야지 댜바래, / 두와 바웅메

〈 주 기 도 문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까응긴 봉나이 시더무더 조눗뚜이 아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고더이 나마더아 유데래맞친 시바세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임안더 디팅바세더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루더디 까응긴 봉나이 뵘송 다개뚜 메찌버마 뵘송바세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뻬묘라우더 아샤고 조눗뚜아 야네 뵘다나 더무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조눗뚜고 뵘흐마더 아뵘먀고 조눗뚜디 흐롯다개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눗뚜이 아뵘먀고 흐롯더무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뵘뚜이성야뚜 마라이 마바세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까응더 아무아야마래 개눗더무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쑤바잉더 아코인호닌 뵘다꼬 아누버더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바아셋셋 고더나이다 시바세 아민

< 인칭 및 가족관련 단어 >

한국어	미얀마어	한국어	미얀마어	한국어	미얀마어	한국어	미얀마어
나	웅아	눈	미애엑시	정류장	흐맛따잉	닭고기	쩍따
너	닌	코	흐나카웅	여기	디마	양고기	또따
우리	웅아또	입	바삿	타미날	타미날	생선	웅아
아내	마야	귀	나	표	랫흐맛	소금	사
아버지	아폐	목	래빈	택시	떡까씨	야채	힌디한 유액
어머니	아메	어깨	빠코오	배	떤보	과일	멧디
할머니	아파	팔	랫마웅	집	뻗씨	커피	꼬피
할아버지	아포	손	랫	지도	메봉	차(Tea)	라פק예
오빠	아꼬	다리	제다옥	기차	야타	기관	
형	아꼬	발	제	요금	단포	시장	제
남동생	니	배	바익	음식		상점	꼬웅소용사잉
여동생	니마	가슴	인밧	쌀	산	교회	바야저웅
언니	아마	약국	세사잉	빵	빠웅모웅	사찰	세디
누나	아마	열나다	아파시대	면	지태	학교	저웅
친구	파웅애친	교통		반찬	힌	병원	세웅
가족	미따수	자동차	까	물	예	은행	바안
신체		고속버스	밧스까	우유	뇌노	경찰서	애사칸
얼굴	미애엑흐나	비행기	레인바인	소고기	아매따	대사관	단웅
머리	가웅	공항	레색	돼지고기	웁따	항공사	레저웅카이

< 장 소 >

한국어	미얀마어	한국어	미얀마어	한국어	미얀마어	한국어	미얀마어
여기	디마	누구	배두래	어떻게	배로래	전기불	홀리얏쌩 미
저기	호마	얼마	배라옥래	언제	배떠래	전화	포웅
이것	디하	무엇	바래	기타		영수증	삐예사
저것	호하	어느것	배하래	여권	나잉안 꾸랫흐 맛	돈	바익산
그것	애디 하	어디	배마래	환전	응웨	휴지	티슈쌩 구



♣ 사역을 정리하면서 ♣

다음은 당신이 단기선교사역으로부터 되돌아 올 때 동료들과 토의할 수 있도록 돕는 문항입니다. 몇 분간은 각각 다른 종이에 자신의 대답을 써 본 후 서로 돌아가며 나누십시오.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하십시오.

1.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느꼈던 때는?
2. 사역 기간 동안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3. 금번 사역을 통하여 십자가의(복음) 능력을 어떤 순간을 통해 체험했는가?
4. 귀국 후의 신앙생활에서 결단한 것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5. 금번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요약한다면?.
6. 사역지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정도만을 쓰세요.
7. 금번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릴 일은 무엇인가?
8. 다음 사역을 위해 현지의 정보를 소개 한다면?
9. 선교위원회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간단한 미얀마어

한국어	미얀마어
나(1인칭)	제노(남자), 밌노(여자)
당신, 너(2인칭)	카야, 밌
그(3인칭)	또
안녕하세요 / 안녕히 계세요	밍골라바
감사합니다	뽀주 편바대
고맙습니다	뽀주 바바
고맙습니다	뽀주 바
어떻게 지내십니까(건강하세요?)	넵카웅 열라?
어디 가세요?	배 와 밀라?
미안합니다	아 나 바대 / 쏘리바
용서하세요	따웅만 바제
안녕히 주무십니다	뽀야다 윈따바대
이름이 뭐예요?	나에 발로 코 둘라?
나이는 몇 살이에요?	어똘 뽀라웃 시발라?
얼마예요?	뽀라웃라?
비싸요	제 피대
값아주세요	소 웨바
오른쪽 / 왼쪽 / 똑바로	아백 / 배백 / 꾀대
화내지 마세요	뽀잇 머시바네
화납니다	썸잇니 더
추워요	청대 / 예대
더워요	부대 / 아잇대
좋아요	까웅대
너무 좋아요	뽀잇 까웅대
안 좋아요	머 까웅부
너무 안 좋아요	뽀잇 머까웅부
사랑해요	췌대
좋아해요	파잇대
도와주세요	꾸니웨바

- 식당에서 -

음식 : 흔히 만나는 미얀마 음식

모헝가 - 메기탕으로 만든 쌀국수로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노점식당에서 웅기종기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왜따초진 - 돼지고기 튀김

째따조 - 닭 튀김

카웁세 - 미얀마의 쌀 국수

카웁세 뽀 - 국물에 말아먹는 국수

카웁세 쪼 - 볶음 국수

뽕롱짬따 - 여러가지 해산물이나 고기를 넣어 만든 요리

맛이 아주 좋네요 - 싸로 떼잇 까웅바데

잘먹었습니다 - 와바비/또바비

메뉴판 좀 주세요- 힝아메 싸잉유게바

계산서 주세요 - 빌유게바

영수증 주세요 - 뽀에지뽀바

- 시장에서 -

얼마예요?- 베라웃레?

가격이 비싸요 - 제지데

- 기독교: 한인만을 위한 미얀마 한인교회, 양곤한인교회
(김동연 목사),
미얀마 한인 연합교회(한충렬 목사) 및 미얀마 교회 다수

치안상태 -

-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질서는 잘 유지되고 있는 편임
- 야간에는 전력사정 등으로 도시 전체가 약간 적막한 느낌이며,
상가들도 일찍 문을 닫는 바, 한밤중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대한민국대사관

가. 주소 및 연락처

- No. 97, University Avenue, Yangon, Myanmar
- 연락처 : (951) 527142~4, 515190 / Fax (951) 513286
- Email : myanmar@mofat.go.kr
- 홈페이지 : mmr.mofat.go.kr

나. 근무시간

- 주재국 공휴일과 우리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을 제외하고 월~금까지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임.
- 주말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후 긴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직원들에게 연락 - 영사(핸드폰) : (959) 517-7124

재외동포현황

- 2012.4월 현재 미얀마 거주.체류 중인 재외동포 수는 약 1,400여명

참고사항

- 주재국은 아열대성 기후로 우기에는 풍토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특히 음료(물) 등 음식물에 주의하고 가급적 음식물은 익혀서 먹을 것
- 도시체류시 말라리아, 뎅기열 등 풍토병은 없으나, 외지
여행시에는 주의 요망

< 미얀마 선교역사 >

1813년 아도니람 저드슨과 부인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미얀마의 기독교는 통계만을 가지고 평가해보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1813년 아도니람 선교사가 미얀마에 도착한 이후 6년만인 1819년에 첫 번째 개신교 기독교인을 보고하게 된다. 이후로 미얀마 침례교회는 50년 후인 1863년 10,500명, 100주년이 되는 1913년에 65,612명, 150주년이 되는 1963년에 216,601명의 교인이 보고되었다.

2003년에는 1,268,881명의 교세가 보고되어 현재까지 해마다 5-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인종별 기독교 분포도를 보면 미얀마 전체 인구의 10%미만인 까친족, 껀인족(카렌족), 친족이 미얀마 전체 기독교 인구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친족은 90%이상이 복음화 되었으나 다른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은 극히 미비하다. 버마족을 포함한 다수 종족들에게 복음전파가 강력히 저항받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대다수의 불교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정령숭배권에 집중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전체인구 5,322만명(2003년) 중의 5%인 260만명 정도가 기독교인(카톨릭포함)이고 87%의 불교도를 포함하여 95%가 복음이 미치지 못한 채 남아있다. 260만명의 미얀마 기독교인중에 75%에 해당하는 195만명이 개신교이고 25%인 65만명이 카톨릭 신자이다. 미얀마 침례교는 개신교 기독교인의 65%에 해당하는 127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

미얀마 개신교 선교역사 192년의 역사를 통하여 800여명의 미국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뿌리며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 1995년부터 시작된 한인선교사들의 미얀마 선교가 이제 10년이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빠르게 현지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구체적인 사역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발판들이 마련되어가고 있다. 이 시기에 과거의 선교역사를 통하여 미얀마를 위하여 기꺼이 삶을 드렸던 선배 선교사들의 숭고한 삶의 모습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행하여졌던 사역들을 통하여 앞으로의 효과적인 사역의 방향과 전략들을 도출해내며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실패의 가능성들을 줄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노고를 이어나가려 한다.

< 미얀마 개신교 선교역사 >

1)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1788-1850)

1813년 7월 13일, Georgeana호가 우기철이 한창인 랭군항구에 도착하였다. 마침내 아도니람 저드슨과 부인 앤 저드슨이 버마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저드슨이 미얀마에 도착한 첫 번째 선교사는 아니었다. 영국 선교사 Chater를 비롯하여 여러 선교사들이 왔으나 되돌아 갔고 저드슨이 도착하고 얼마 후에 영국 침례교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했던 윌리엄 캐리의 아들인 펠릭스 캐리마저 잉와(Ava)로 떠나가게 되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1788년 메사추세츠의 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6세에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하여 4년과정을 3년만에 졸업하고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했다. 학창시절 제이콥 임즈라는 친구의 자연신론 사상에 영향을 받아 한참을 방황하다가 우연히 투숙한 여인숙의 옆방에서 밤새 신음하다 아침에 죽어나간 환자가 다름아닌 제이콥 임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앤도버신학교에 들어가 헌신을 서약하게 되고 영국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역 보고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리라 결심한다. 1812년 2월 5일 보통 낸시라고 알려져 있는 앤 하셀타인과 결혼하고 13일 뒤인 인도를 향해 떠나 6월 중순 캘커타에 도착했다. 회중교회의 선교사 자격으로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라는 영애를 안고 파송받은 이들은 인도로 가는 선상에서 세례에 관해 연구와 토론을 한 뒤 캘커타에 도착하여 세람포에서 저드슨 부부, 그리고 함께 파송됐던 루터 라이스까지 Ward에게 침례를 받고 침례교도가 된다. 라이스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며 사임의사를 적은 편지와 함께 선교사역을 지원해 주도록 미국침례교단을 설득하는 임무를 부탁하였다. 인도의 세람포에서 영국선교사 윌리엄 캐리, Marshman, Ward를 만나서 반가운 교제와 이상적인 팀선교를 배우는 시간도 잠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시 인도를 지배하던 동인도회사의 영국관리들은 미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인도에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프랑스령의 포트 루이스로 떠나도록 제안을 받았으나 선교사역의 가치를 찾지 못하였다. 연구와 기도끝에 말레이반도의 페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떠나려 하였으나 우기에 떠나는 배가 없었다. 동인도 회사의 계속되는 압력에 무조건 가장 빨리 떠나는 배를 찾아보니 버마로 가는 Gorgiana호였다. 사실은 아도니람 저드슨이 처음에 가기를 희망하던 곳이 버마였었는데 윌리엄 캐리의 권유로 버마에 가서 사역하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때에 어쩔수 없이 다시 버마로 가게 된 것이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랭군에 도착후 언어공부에 집중하였다. 처음 9개월동안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언어공부에 집중하였다. 교재는 펠릭스 캐리가 남기고 간 6

장의 마태복음과 미얀마 문법과 사전일부가 전부였다. 앤 저드슨은 집안을 관리하고 동네의 여인들과 교제하면서 오히려 아도니람 저드슨보다 버마어에 유창하게 되었다. 1816년 1월부터 신약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3종류의 인쇄물을 제작하였는데 1816년 10월에 도착한 인쇄공 선교사 조지 휴와 그의 아내 페비가 동역하며 7페이지 분량의 팜플렛 기독교의 관점(A View of the Christian Religion), 6페이지 분량의 기독교 교리문답(Catechism), 800페이지 분량의 마태복음 버마어 번역이었다. 그들은 두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며 1816년 11월 최초의 버마 침례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저드슨과 휴즈는 역할을 나누어 효과적인 동역을 하게되는데 선교부의 사역 방향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약하였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버마제국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 1) 성경의 번역과 인쇄, 보급을 힘쓴다.
- 2) 복음을 전한다.
- 3) 전도지와 복음 소책자를 계속 배포한다.
- 4) 현지 어린이를 지원하고 양육한다.

1817년 12월25일 저드슨은 서부지역 아라칸(야카인)지역을 배를타고 여행하다가 돌풍을 만나 3개월간 바다에서 조난당하여 아사(餓死)직전에 인도의 해안가에 도착하여 목숨을 구한다. 떠난지 8개월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 1819년 4월 4일 저드슨은 Zayat을 지어 첫 번째 설교를 한다. 버마인들과 가까이서 섞여 살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전도하는 기회를 갖기위하여 한국의 정자와 같은 형태의 Zayat를 만들어 현지인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1819년 5월 중순경에 Zayat을 만든지 한 달 후에 마웅노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버마인들을 위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6월6일에 마웅노는 세례를 청원하는 글을 썼다. 그 뒤로 얼마 후 현재의 보조제 근처의 큰 연못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에 의하여 첫 번째 세례가 거행되었다. 1820년 여름에는 10명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고 선교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해 계속해서 건강이 좋지못하던 아내 앤저드슨을 치료하기 위하여 몇 달동안 캘커타로 갔다. 그러나 앤은 병이 더 악화되어 1822년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 갔다. 앤이 없는 동안 아도니람 저드슨은 성경연구에 몰두하여 1년이 안 되어 신약성경 번역을 완성하였다. 아도니람과 함께 일하던 의료선교사 조나단 프라이스가 왕의 호출을 받고 잉와(Ava)로 가게 되었을때에 통역을 위해 아도니람이 동행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아애 앤은 아도니람과 합류했으나 잠깐 뿐이었다. 1차 미얀마-영국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외국인이 간첩으로 의심받아 아도니람과 프라이스는 체포되어 아웅핀 레감옥에 수감된다. 감옥에서 갖은 고문과 시련을 겪게되는데 아내 앤 저드슨도 모진 시련을 겪는다. 설상가상으로 하루저녁 간신히 얻게 된 면회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출산후 병약해진 산모가 아기를 돌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동냥젖을 먹이기도 하였다. 1826년 영국과 미얀마 간에 평화 협정(Yandapo sachok)의 통역과 번역위해 1825년 11월 1년 반 만의 수감끝에 저드슨을 프라이스와 함께 석방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야카인주와 떠난다리주를 동인도회사에 뺏기게 되었고 두 주는 선교사역이 허락되었다. 1826년 7월 2일 짜익카미로 이동하여 선교사역을 다시 시작한다.

Crawfurd 의 요청에 의해 저드슨은 야다나 협정의 후속조치에 관한 서류작업을 돕기 위해 1826년 9월30일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잉와(Ava)에 도착한다. 아도니람은 거기에서 다시한번 미얀마 선교위해 왕에게 청원했지만 거절당한다. 저드슨이 잉와에 있을때 Ann은 짜익카미에서 1826년 10월24일에 사망한다. 말라리아에 걸린지 3주만에 일어난 일이다. 몇 달 뒤 9개월 된 어린딸 마리아(마 민레이)가 엄마뒤를 따라갔다. 아도니람은 커다란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13년간 동역자였던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일에 파묻히게 된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아내가 죽은지 2년 후에는 밀림에 들어가 오두막을 짓고 혼자 떨어져 살았다. 오직 번역사역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을 굳건한 신앙으로 이겨내고 마음의 병에서 회복되어 갔다. 1834년 1월31일 버마 성경 번역을 마치게 되었다. 1834년 46세의 나이로 저드슨은, 남편이 3년전에 세상을 떠났으나 선교사역을 계속하던 30세의 미망인인 Sarah Boardman과 재혼하였다. 1835년 12월 버마어 성경의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1836년 이전까지 세례자가 버마와몬족 188명, 카렌족 406명, 외국인 191명으로 총 785명 이었는데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해인 1836년 한해동안에 버마와 몬족 19명, 카렌족 323명, 외국인 16명으로 한해동안 총 358명이 세례를 받게 되어 1936년까지 전체 세례자수는 1143명으로 보고되었다. 두 번째 부인 사라는 1845년 사역에 지쳐 허약해진 몸에 마지막 아이를 낳고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임종하였다. 저드슨과 3명의 아이들도 동행했는데, 저드슨은 고국을 떠난지 33년만에 미국에 되돌아왔다. 미국에서 순회선교보고를 하는동안 소설가 에밀리 첵보크를 만나 사라의 전기를 써볼 것을 권유하게 된다. 이 제의를 계기로 1846년 6월 58세의 저드슨은 20살의 작가 에밀리와 결혼하게 된다. 1846년 11월 저드슨은 버마에 돌아왔고 사역에 전념하였다. 그때까지 그가 만난 바마족 회신자는 10명 정도였다. 저드슨은 양곤에 돌아가서 사역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교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몰람냐이로 되돌아간다. 몰람냐이에서 1848년 말에 영어 - 미얀마 사전을 완성하였다. 그로부터 1년후에 아도니람 저드슨은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병약한 아내를 남겨두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1850년 4월 3일 배에 올라 1850년 4월 12일 배위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앤더만 섬 근처의 바다에 수장되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1813년에 도착하여 38년간 사역을 했던 1850년까지 미

얀마에서 사역한 개신교 선교사는 48명이었고 74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7904명의 기독교인이 보고되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버마족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애정을 가지고 힘썼으나 정부의 불교이외의 종교에 대한 경직과 압력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1840년대 후반까지 버마족을 위해 사역하던 선교사의 50% 이상이 버마족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사역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2) 저드슨 이후 미얀마 침례교회

1852-3년 영국과 미얀마 2차 전쟁이 끝나고 남부 미얀마를 영국이 점령하게 되었다. 1852-1862년 양곤을 영국식민지로 재건축할 때 선교본부와 출판사, 성경학교가 양곤으로 옮겨왔다. 1885년 3차 영-미 전쟁으로 버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

미얀마에서 종족 선교를 시작한 시기를 보면 1813 - 몬, 미얀마, 1828 - 서고 카렌, 1836 - 뽀카렌, 1838 - 빠오, 1853 - 까야, 1856 - 아쇼친, 1860 - 산, 1877 - 까친, 리수, 1899 - 조미 친, 1904 - 와, 1936 - 아카, 1953 - 나가족 선교를 시작하였다.

1921년 통계를 보면 불교도 1,994,544명이었고 기독교인구는 15,381명(카톨릭 포함)으로 불교도 600명 중 1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1962년에 군사구테타로 정권을 잡은뒤인 1966년 5월 27일 미국선교사가 미얀마에서 완전철수한다. 1962년 3월 2일 군사정부가 집권한뒤 사유 재산을 완전 몰수하였고 1964년 모든 미션스쿨이 국유화된다. 아도니람 저드슨대학이 양곤대학으로 바뀌고 수많은 미션스쿨들을 강제로 정부가 접수하였다. 이전에는 선교사로 인해 세워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였었는데 1965년을 시작으로 금지되었다.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2003년에는 127만명의 침례교인이 보고되었다.

3) 영국 성공회(1824~1877 Church of England)

미얀마에 처음 도착한 앵글리칸 교회는 선교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1824~1826년 영국-미얀마 1차 전쟁 때 영국군의 군목인 킴벨(Cimbell)이 미얀마에 도착하였다. 영-미 2차 전쟁 후 미얀마 남부를 영국군이 점령 후에 영국 성공회가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1854년 인도 깔라까따지역의 사제학교 학생이었던 쿠키(Cookey)가 미얀마에 도착하였다. 몰람냐이에서 교육사역을 시작, 성공회의 첫 번째 사역으로 볼 수 있다. 카렌족 중심 사역 후에 미얀마에 사역을 하게 된다. 1859년 에시아 신부 부부가 몰람냐이에 도착하여 선교사역을 시작한다. 이들은 미션스쿨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863년 마크

(Mark) 양곤 도착 만달레이에 미션스쿨 설립하였다. 특히, 민동왕의 아들, 손자가 다녔다. 민동왕이 마크와 친분이 있어서 미션스쿨과 교회를 건축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었다. 미얀마 북부에 영국성공회가 급속히 증가하는 기회가 되었다. 1877년 갈라까따 선교부가 나누어져 비숍티콤(Bishop Titcomb)그룹이 영국 성공회 선교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다.

4) 감리교회(Methodist Church)

(1) 웨슬레안 감리교(1887~1925)

영 -미 3차 전쟁시(1885년 12월) 만달레이에서 영국군이 승리하였다. 1886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북부 미얀마 전체 영국식민지가 되었다. 그래서 영국군과 함께 군목으로 빗슨(J. H. Biteson)이 만달레이에 도착한다. 1887년 갈라까따에서 브라운(J. M. Brown)과 띠호섬에서 위스턴(W. R. Wiston)이 도착한다. 그들은 북부 미얀마 선교방향에 관하여 의논하고 결정하였다. 그 후에 만달레이에 선교사무실을 열고 민찬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1888년 위스턴을 돕기 위해 베스톨(A. H. Bestall)이 도착하였다. 만달레이에 문둥병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1891년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대지위에 나환자 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1893년 친뚜잉강 주변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철먼(C. H. Churman) 목사를 불러 몽요와요 선교부 사무실을 열었다. 인도와 아딕지역 웨슬리안 감리교회(Westleyan Methodist Church)의 선교사역으로 원시부족인(나가족) 3만명이 회심한다. 1차 세계대전(1918년)후 아딕지역 원시부족(나가족)들이 갈레요로 이주해와 거주하게 되었고 나가족을 섬기기위해 월터(C. Walter)목사와 고딘(S. Gordin)이 그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한다.

(2) 미국감리교회(American Episcopal Methodist Church) -1879~1901

로 마카톨릭, 침례교, 성공회가 도착후 오랜시간이 흐른 뒤에 미국감리교회 선교부가 도착했다. 감리교는 인도지역만을 위해 사역하였다. 그들의 교인 중 미얀마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많아져 양곤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인도 지역 책임자 토블란(J. M. Thobran)이 까따목사 부부를 미얀마에서 일하는 인도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파견하였다. 이 일로 1879년 6월 미국감리교회 선교부가 양곤에 영국감리교 미션스쿨과 함께 세워졌다. 그래서 미얀마 감리교가 인도 감리교의 감독하에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침례교회에서 장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미국 감리교의 도움은 없었다. 그 후에 뽀소단 길과 파에사 길 코너에 대지를 구입해 최초의 감리교회로 건축을 시작하여 1880년 5월 25일에 완공하였다.

5) 장로교

1872년 Scotsmen에 의해서 양곤에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워졌는데 버마인들에게 선교할 목적은 없었다. 1935년 친주에 있는 침례교인 중에 일부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 춤을 추고 방언을 하게 되자 교회에서 쫓아냈다. 쫓겨난 자들이 모두 모여서 미송안에 있는 장로교회에 가서 허입을 요청했으나 친주에 있는 미국침례교 선교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거절하였다. 그후 마니뿌라에 있는 장로교회가 도움을 주었다. 장로교회는 Bawichuaka를 친주로 보냈다. 1938년 파란에서 50마일 떨어진 마웅쿤 마을에 I.C.B(토착교회)를 설립하고 Lianpianga목사를 세웠다. 2차대전시에는 선교사역이 잠시 멈추어졌고 전후에 다시 시작하였다. 평신도 Chalthuama 선교사에 의해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카 침례교단 소속의 Than Kab목사가 1947년 출교를 당한 후에 I.C.B에서 받아들여 목회자로 사역하게 된다. 1953년 원시부족을 위한 선교부가 친주에 50여개의 지역을 선정하고 순회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들이 열심히 사역하여 급속히 부흥하였으며 그들의 사역은 갈레묘에 집중되었다. 1955년 I.C.B교회가 따한묘에 세워졌다. Lalthan Liana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하였고 1956년 2월 5일 빠랑 지역 락판 마을에 모여 장로교단을 결성하였다. 스스로 결성후(자생교단) 인도 사잉노 장로교단으로 소속되었다. 갈레지역과 교단이 갈라졌지만 Lanthanga목사에 의해 급속히 성장하였다. 1962년 2월 미얀마 장로교 전체 총회 열고 L.R.쁘라 초대 총회장에 임명한다.

6) 제7일 안식교회(1902~1920)

갈라까다시 안식교 목사 Mrs. H. B. Meyers와 A.G. Waston목사가 성경순회하며 팔기위해 도착 침례교인 U Maung Maung과 도메 남매에게 안식일이 주일아니고 토요일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1904년 안식교 총회에서 안식일에 대해 논쟁할 때 우마웅마웅을 인도로 보냈다. 우마웅마웅의 요청에 의해 1905년 H.H.보기 목사부부와 간호학 교수 힌산남매를 파송한다. 1905년 안식교도착 사야 힌산과 사야 우뽈라가 몰람냐이에서 사역한다.

7) 오순절 교회 (Pentacostal Church)

오순절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회"를 설립한 것은 1896년이다. 하나님의 성회교단의 교회는 이완젤리 아민도(Evangel Church)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J.C Morrison 목사부부가 1931년에 도착하였다. 선교 초기에는 탄린강 유역의 리수족에게 선교를 하였다. 라왕족 2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심을 한후에 모리슨부부는 까친주의 부다오로 갔다. 그곳에서 리수종족과 라왕족 37가정을 회심시키고 오순절 교회를 개척하였다. 모리슨 목사는 세계2차 대전이 발발하자 미얀마에서 미군에 입대하여 리수와 라왕족들을 위해 통역원으로

일하였다. 1947년 2차대전이 끝난후에 모리슨부부는 돌아와서 사역을 계속 하였다. 리수족으로 시작했지만 후에는 미얀마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을 통합 하여 사역하면서 부흥성장하였다. 1957년 스탠포드목사 부부가 양곤과 북부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였다. 1964년 양곤의 우바와란 15번지 루따인교회를 구입하여 이완겔리 아띠포(Evangel Church)를 개척하였다. 1960년에 미얀마의 오순절 교회는 7명의 선교사와 미얀마, 리수, 라왕 종족등의 목회자90여명, 275개의 교회 18,558명의 교세로 성장하게 되었다. 1964년에 미찌나에 신학교를 설립하였고 우묘아웅목사가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1965년에 외국인 추방으로인하여 선교사가 철수하고 Hpa La Min목사가 총회장이 되어 교단을 이끌어 나갔고 우묘치을 안수하여 교단총무로 사역하게 하였다. 오순절 교회는 미얀마에서 교회를 개척해가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중의 하나가 되었다.

< 미얀마 일반역사 개요 >

미얀마에 사람이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것은 약 5천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랜 세월동안 여러 민족들이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대립과 갈등을 반복한다. 이천년전 북부에서 류족이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고 남부의 몬족이 도시를 건설하여 미얀마 불교문화의 근간을 이룬다. 8-9세기경 티베트로부터 이주해 온 버마종족은 849년에 최초의 통일국가 바간왕조를 이루며 황금기를 맞이한다. 바간왕조의 어노여타왕은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종교적 통일을 이룬다. 바간 왕조는 미얀마에 4백만개의 불탑을 남기고 1287년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이 이끄는 몽고군의 침략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1310년 몽고가 물러나고 산에서는 잉와왕조가 생기고 남부의 몬족은 바고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따와디 왕조를 형성하여 부흥기를 이루며 쉐다곤을 현재모습으로 건축한다. 서북부지역에서는 라카인왕국이 건립되고 중북부의 빠 지방에서 따웅우 왕조가 성립되어 대립의 시대를 맞이한다. 따웅우 왕조는 두 번째 통일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1550년 따웅우 왕조의 버인나웅왕은 한따와디 왕조의 수도였던 바고로 수도를 옮기고 1564년 태국의 아유타야를 점령한다. 1581년 버인나웅왕이 죽자 대부분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1636년 수도를 북쪽으로 천도하며 역사에서 사라진다. 삼대통일왕조 공바웅왕조는 왕국을 확장시키는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와의 마찰로 1824-6년에 영국과 미얀마 1차전쟁, 1850년 2차전쟁, 3차전쟁 후 1886년 미얀마를 인도의 한주로 편입시키며 식민지 통치를 하게된다.

미얀마의 근대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식민지 시절 양곤은 미얀마 최대의 항구 도시로 발전하게된다. 영국은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위해 소수민족과 버마

족 분리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종족간의 대립양상이 심화되었다. 1916년 영국인이 사찰에 신발을 신고들어가는 사건으로 승려 레디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영국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장독립운동시작하여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과 30인의 독립투사가 활동을 한다. 아웅산은 일본과 손을잡고 영국을 인도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하지만 영국보다 더 혹독한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일본의 야욕에 제물이 된 것을 안 아웅산은 다시 영국에 사절을 보내 연합작전을 개시 일본 몰아내는데 성공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약속받는다. 1948년 1월4일 미얀마는 꿈에 그리던 독립을 하게 된다.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은 우소의 저격에 의해 피살당한다. 초대 수상 우누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집권을 시도하지만 계속되는 정책실패로 정국이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1962년 3월 30인 지사중의 한명이었던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하고 17명으로 구성된 혁명평의회가 공산주의와 불교를 접목한 버마식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쇄국의 길로 들어간다. 1964년에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하였고 모든 미션스쿨을 국유화 하였다.

1988년 8월 8일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군사독재 종식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무자비한 군부의 탄압으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다.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외치는 서방의 압력이 거세지자 1990년 5월27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아웅산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가 전체 485석 중 39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총선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996년 12월에는 총선결과 수용 및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교 휴교령을 발효하였다. 1997년 11월 탄쉐수상은 국가통치기구를 SLORC에서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로 바꾸고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였다. 2003년 5월 30일 미얀마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아웅산 수지여사 지지세력과 미얀마 군사정부 지지세력간의 충돌로 인해 아웅산 수지여사가 구금된 이후, 미국 등 서방세계의 강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SPDC 내부에서 합리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킨윤장군을 수상으로 임명한 이후 2003년 8월 민주주의 7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서방세계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으나, 서양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2004년 10월 킨윤장군이 실각하고 강경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미얀마군부와 서방세계와의 대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아웅산수지 여사 구금,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등으로 미얀마 국내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주의로 가는 7단계 로드맵중 제1단계인 국민회의가 2004년 5월 17일 NLD 참석없이 진행되었다. 2005년 4월 17일 미얀마가 영국식민지 시절, 산주(State)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Mr. Sao Shwe Thaik의 아들 Mr. Sao Hkam Hpa(캐나다 거주)가 산주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한다고 외신을 통해 선언하면서 SURA, KNU 등 반군 단체의 활동이 거세진다. 2005년 5월 7일 양곤 시내의 두 군대의 쇼핑센터와 무역전시관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시한폭탄이 5분간격으로 터지게 되고 정부는 반군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검색정국으로 몰아간다. 군부에서는 정권유지와 쟁탈을 위한 암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2005년 10월 24일 그동안 정부에서 배급제로 공급하던 기름값을 900%인상하면서 또 한번의 위기가 닥쳐온다. 기름값이 모든 물류비에 반영되면서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공공요금도 인상되었다. 2005년 11월 18일 정부 모든 부처와 군 사령부까지도 양곤에서 320킬로 북쪽에 떨어져있는 빼머나로 옮긴다는 발표를 하고 사실상 수도를 옮기고 있다. 미국과 유엔을 통한 아웅산 수지의 연금해제와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쇄국과 폐쇄의 길로만 걸어가고 있다. 민생과 치안의 불안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거주 및 거주환경의 악화로 온통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밤이 너무 깊다. 마치 새벽이 오지 않을 것만 같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미얀마에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예수님 한분 뿐이다. 구원의 새벽동은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M E M O

